

■ 11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관전포인트

전대 앞두고 당권주자 대리전 양상

출마자 총출동...주류·비주류 세대결 우려

오는 11일 열리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당 경선 일정 중 처음으로 열리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당심이 다음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 결과에 직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시당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김재균, 강기정(접수 순) 두 후보자가 접수했다. 기호는 접수마감 직후 추첨을 통해 김재균 후보가 1번, 강기정 후보는 2번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차기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영주중합계육관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직

접 투표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당내 주류(강기정 의원)와 비주류(김재균 의원) 측 대표 주자라는 점에서 지역정치권은 물론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주류인 정세균 전 대표와 비주류 측 인사들이 이미 당권 도전을 밝혔거나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 측을 대표하는 두 후보들이 전당대회에 앞서 피할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결과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가 상징하는 큰 의미 때문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다음달 3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대표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력 당권 주자 진영은 적극적으로 시당위원장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주자 진영 측이 시당위원장 경선을 통해 광주에서 자신들의 지지세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사활을 건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두 후보의 향후 정치 이력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력 당 대표 주자들에게도 당권 획득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열리는 전날인 10일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대표 출마자들이 대거 광주로 집결한다.

결국으로는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

앞서 예정된 당 대표 출마자 정견 발표 때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당위원장 경선 하루 전날 광주에서 자신들의 지지 대의원을 중심으로 세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 시당위원장 경선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 출마자들의 '세 불리기' 행보가 시당위원장 경선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류와 비주류 측의 박빙의 승부가 예고되어 당권 주자들의 지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 공개토론회와 두 후보 간 '공개 토크 선거 서약식'을 제안했다. 특히 공개토론회는 앞서 김재균 의원이 제안한 만큼 조만간 두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최권익기자 cki@

“민간차원 대북 쌀 지원 긍정 검토”

정부 고위당국자 “6자회담·천안함 전제조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이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 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민관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 단체와 야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 천안함 뿐 아니라 남북관계 풀리고 있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 쌀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언급, 이 당국자는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태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자가 서로 (좋은 해결을 위해) 반쳐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으로 재고쌀 대북지원 나서야”

쌀값 하락에 따른 전남지역 농민들의 불안 심리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재고 쌀을 매입,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쌀 현황을 고려하면 올해 공공비축미를 매

입하고 농협을 통해 사들이더라도 쌀 보관창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재고 쌀을 매입,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쌀 현황을 고려하면 올해 공공비축미를 매

전담도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 기금과 22개 시·군의 매입 자금을 보태 60억을 만들고 북한에 쌀을 지원하게 되면 넘쳐나는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또 전남도·전남도의회가 특별기금을 구성해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은기자 dok2000@kwangju.co.kr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십

광주 북구 대상

광주시 북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 주최·주관으로 열린 '제34회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 수상 단체로 선정돼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북구장학회' 운영 등 주민 주도적 참여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6년 연속 수상과 6년 동안 전 부문(고객만족·인재개발·생산성혁신·정보화·미래경영부문)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국가생산성 대상은 1962년 생산성상 시작으로 1987년부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정부포상 제도로 전환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장·차관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반기 국정을 수행하는데 현장을 중시해 달라”며 기득권층의 '자기희생'을 거듭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장관급 20명과 차관급 5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다고 한중대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G20 의장회의의 정례회를 제안했던 박 의장은 “이번 G20 의장회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진정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국회는 차기 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비해 곧 정부 측과 협의 절차를 착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G20 의장 회의 내년 서울서 개최될 듯

주요 20개국 의회가 참여하는 G20 의장회의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폐막된 G20 의

회의 폐회사를 통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내년 서울에서 2차 G20 의장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참가국들은 박수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

광주·전남 기능장 호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교정 관리 환영

초슬림!! 스릴과 맘이 초극세화하여(0.3m)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발 50만원 NAVER 주소(D)대산프리모

•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방사선 치료환자 등 가발의 모든것을 해결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배너 나방방 500m 대산프리모기발

옥상·외벽·내벽·주벽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①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②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③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④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⑤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⑥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150,9001,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